

『續蒙求』 所載 여성 인물 일화의 특징 고찰

—인물 선택과 주제 구현 면에서 『蒙求』와 비교하여—

이연순*

<차 례>

1. 서론
2. 『續蒙求』와 『蒙求』 소재 여성 인물 일화와 그 유형
3. 『續蒙求』 소재 여성 인물 일화의 선택과 주제 구현의 특징
 - 1) 역사상 중국 상층 여성의 모범적 언행을 담은 일화 선택
 - 2) 성인 남성 독자를 의식한 이상적 여성상의 제시에 중점
4. 『續蒙求』 소재 여성 인물 일화의 의의와 한계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16세기 주자학자인 미암 유희춘이 유배지에서 친술한 『속몽구』가 기존에 조선의 인물도 포함하여 다름으로써 주체적인 시각을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데 대해, 그 안에 수록된 여성 인물의 일화의 경우는 당대적 한계가 있음을 문제로 지적하고, 인물 선택과 주제 구현의 측면에서 『몽구』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는 점을 비교하여 그 특징을 살피고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속몽구』에 들어 있는 여성 인물 일화는 인물 선택 면에서 역사상 중국의 상층 여성의 모범적인 언행만이 다루어진 점과, 주제 구현 면에서 주자학적 세계관에 부합하는 이상적 여성상을 제시하려 한 점에서 『몽구』의 경우와 차이를 보이는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로써 조선시대 중기 여성 인물 일화에 대해 다른 저술로서 『속몽구』의 당대적 의의를 부여하고 한계를 밝힐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이와 더불어 미암의 여성 인식과 나아가 여성 교육의 측면과도 관련하여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으나 거기까지는 미처 다루지 못하여 추후의 연구로 미룬다.

* 성신여자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續蒙求』, 『蒙求』, 여성 인물 일화, 특징, 인물 선택, 주제 구현, 비교

1. 서론

본고에서는 조선 시대에 여성 인물의 일화를 수록하여 편찬한 저술 가운데, 16세기 眉巖 柳希春(1513~1577)이 펴낸 『續蒙求分註』에 수록된 여성 인물의 일화를 중심으로, 이에 대해 당나라 때 李瀚(?~?)이 지은 『蒙求』의 경우와 비교해 특징적인 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곧 『속몽구분주』(이하 줄여서 『속몽구』로 칭함)는 『몽구』와 비교해, 여성 인물의 선택과 주제 구현의 면에서 차별점이 발견되는바, 이로써 『속몽구』 소재 여성 인물 일화만이 갖는 특징을 살피고, 그 의의와 한계를 밝힐 것이다.

『속몽구』는 미암이 을사사화로 유배 가게 된 종성 지역에서 17년간 공을 들여 짓고 해배되자마다 간행한 저술이다.¹⁾ 미암이 당시 퇴계에게 『속몽구』와 함께 편지를 보내자, 퇴계는 “하늘이 수많은 세월 동안 공을 궁벽한 곳에서 고생하도록 한 것은 아마 공으로 하여금 이러한 업적을 남기게 하려는 뜻인가 봅니다.”²⁾라고 답하며 그 공을 높이 샀다. 이후 안정복은 미암이 유배지에서 『속몽구』를 저술한 것을 宋의 胡寅의 경우에 비하여, 호인이 남해에 유배되어 한 권의 책도 가져가지 않았으나 『讀史管見』 삼십 권을 지은 것과 같다 하고, 미암의 그 聰明하고 強記함을 천고의 뛰어난 재주라 칭하였다.³⁾ 또 미암보다 뒤에 종성에서 유배를 보낸 金時讓

1)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2책, 1568.7.5., 續蒙求校正開刊甚精, 李公又倩文作跋可觀. 十七年用工之書, 一朝成就流行. 喜幸無已.

2) 李滉, 『退溪集』, 권12, 『答柳仁仲』, 示及續蒙求, 固知公之博雅該洽, 久矣. 天之厄公於絕塞許多星霜, 意者, 俾之作此等奇事也. 歎尙歎尙.

3) 安鼎福, 『順菴集』, 권13, 『橡軒隨筆』下, 〈聰明強記〉條, 胡致堂寅謫南海, 不携一書, 作讀史管見三十卷. 我朝柳眉菴希春謫鍾城, 無一卷書, 作續蒙求. 其著書

(1581~1643)은 그의 저서 『涪溪記聞』에서, 미암이 유배지에서 곤궁하게 살면서도 만 권 책을 읽고 『속몽구』를 저술하여 선비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기록하였다.⁴⁾ 미암이 유배지에서 보낸 기간의 행적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구체적인 정황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속몽구』 저술인 것이다.⁵⁾

『몽구』의 어원은 『周易』 「蒙」卦의 ‘童蒙求我’, 곧 ‘동몽이 나에게 구한다.’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⁶⁾ 이는 무지몽매한 아이들이 기본으로 익혀야 할 덕목 등을 나에게 요구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며 깨우쳐 주어야 할 내용물을 교재로 만든 것이 『몽구』라고 할 수 있다.⁷⁾

『속몽구』는 이러한 『몽구』의 체제를 본떠, 모두 총 296題 592명의 인물에 관한 逸話와 言論(評)을 담고 있고, 그 일화의 출처를 밝혀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⁸⁾ 단, 『속몽구』와 『몽구』가 모두 같은 수의 인물 일화를 다루고 있으나, 둘의 저술 시기와 공간이 달라, 『속몽구』는 미암이 살았던 조선의 16세기까지 역사상 중국 인물뿐 아니라 조선의 인물

俱在被謫之時，而聰明強記，皆千古絕才。

- 4) 『大東野乘』, 『涪溪記聞』, 金時讓, 柳眉巖希春 乙巳之禍坐謫鍾城者十九年, 窮居喫口讀破萬卷, 著續蒙求以惠士子, 從學者甚衆.
- 5)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속몽구 연구」, 『어문연구』 3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440쪽.
- 6) 『周易傳義』 권3, 「蒙」, 蒙亨,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初筮告, 再三瀆, 瀆則不告, 利貞.
- 7) 임동석, 『몽구』 1권, 동서문화사, 2010, 해제 참고.
- 8) 『속몽구』와 『몽구』의 편차 구성과 일화 출처 제시 방식은 달라, 『蒙求』는 上下卷으로 나뉘어 각 인물 일화의 본문을 시작할 때나 그 평을 인용하는 부분에서 출처를 바로 밝히지만, 『續蒙求』는 4권으로 구성해 권1의 앞부분에 ‘人物言論出處’라는 항목을 따로 실어, 본문에서 다룬 인물들의 인용 출처를 한꺼번에 제시하고 본문에서는 제외하였다. 위의 논문, 439~462쪽. 참조.

도 선택하고 그 인물평으로는 미암이 추송했던 주자학자들의 견해를 대폭 반영했다면, 『몽구』는 당나라 때까지의 중국 역사상 인물 일화를 선택하여 그 평에서도 다양한 이들의 견해를 반영한 차이가 있다.

또한 대상 독자 설정도 달라, 『속몽구』는 동몽뿐 아니라 군자, 곧 성인 남성으로까지 확대하였지만, 『몽구』는 기본적으로 동몽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특히 여성 인물 일화의 경우, 인물 선택과 대상 독자 설정에 따른 주제 구현 면 등에서 『속몽구』가 『몽구』와 비교하여 특징이 발견되는 점에서 주목된다.

곧 『속몽구』는 12題 21인에 해당하는 여성 인물의 일화를 다루면서 모범적인 언행을 보인 황후나 왕비, 학자의 어머니나 사대부의 아내 등 주로 역사상 중국의 상층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일화를 선택하여 이상적인 여성상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에 반해 『몽구』는 『속몽구』보다 많은 20題 30인의 여성 인물 일화를 다루며 신분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다양한 여성 인물을 통해 주제를 구현하여 교육적 효과를 꾀하고자 한 점에서 차이가 발견되는 것이다.

『속몽구』 권1에 실린 「凡例」에서 미암은 “民彝와 世教를 주로 하여, 진실로 이에 합하면 비록 시대가 멀고 신분이 낮은 자라도 실어놓았고, 功名이 혁혁한 자라도 그렇지 않으면 취하지 않았다.”⁹⁾ 라고 하였다. 여기서 미암이 『속몽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인물 선택임을 알려 준다. 그에 따라 주로 중국의 역사상 인물을 취택하는 가운데 길재와 정몽주 등 주자학의 도통을 잇는 여말 선초 유학자나, 이광진과 같이 효성이 지극하였던 오랑캐 인물까지도 포함하여 폭넓게 다루고 있는 점에서

9) 柳希春, 『續蒙求分註』 권1, 「凡例」, 一, 是編, 專主民彝世教, 苟合於此, 雖遠且賤, 猶汲而進之. 不然, 雖功名赫奕者, 亦所不取.(『續蒙求分註』는 이하 각주에서도 줄여 『續蒙求』로 함.)

일찍이 주목받았다.¹⁰⁾

그러나 『속몽구』에 수록된 여성 인물 일화를 보면, 역사상 중국의 상층 여성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여성 인물들만 취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속몽구』가 조선의 인물이나 오랑캐와 같은 처지의 인물을 포함해 다룸으로써 그 인물 선택에 주체적 의식을 보였다는 기존의 평가와 다를 뿐만 아니라, 같은 중국의 여성 인물을 다뤘더라도 신분이나 처지에 관계없이 다양한 여성 인물을 담아낸 『몽구』와도 차이가 발견되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또한 『속몽구』 소재 여성 인물 일화는 여성 인물 선택뿐 아니라 대상 독자 설정과 주제 구현에서도 『몽구』의 경우와 다른 점을 보인다. 먼저 『몽구』가 본래 ‘동몽’을 대상으로 한 교육서였다면, 이에 대해 『속몽구』는 동몽뿐 아니라 군자, 곧 성인 남성으로 그 대상을 넓혀 학술서의 성격까지 지니게 되었다.¹¹⁾ 더욱이 『속몽구』는 당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윤리서가 아닌 동몽과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윤리서이자 학술서이기에, 이로써 여성 인물의 일화를 통해 드러내려는 주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판단된다. 곧 『몽구』에서는 선행을 행한 여성의 일화뿐만 아니라 평소 악행

10) 배현숙, 『續蒙求分註 板本考』, 『서지학연구』 26, 서지학회, 2003, 142쪽. 정호훈, 『續蒙求分註』, 『고서해제』 X,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평민사, 2008, 32쪽.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속몽구 연구』, 『어문연구』 3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439~462쪽. 등. 특히 이연순(2011)에서는 『속몽구』의 성격을 밝히는 데 치중하여, 기존에 『속몽구』를 단지 교육서라거나 한편 인물 중심의 類書라 보는 시각에 대해, 『속몽구』는 미암 유희춘이 존주자학자로서 주자학의 이론을 적극 담아낸 학술서라는 점을 드러내고 당대적 의의가 있음을 밝혔다.

11) 이연순(2011), 위의 논문, 446~447쪽. 나아가 『속몽구』에 여성 인물의 일화가 『몽구』보다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제시하고, 『속몽구』 소재 여성 인물 일화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 분석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인 특징을 고찰하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았다. 또한 본고를 준비하면서 『속몽구』가 『몽구』보다 여성 인물 일화를 적게 다루었다는 점을 발견하였기에, 이 부분 정정한다.

을 일삼은 여성의 일화도 다루면서 동몽에게 교육적 포폄의 대상을 제시했다면, 『속몽구』는 모범적으로 선행을 보인 여성의 일화만을 다루며 성인 남성 독자에게 하나의 이상적 여성상을 제시, 구현하려 하였다고 파악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속몽구』 소재 여성 인물의 일화에 한정해 그 인물 선택과 주제 구현 면에서 『몽구』의 경우와 비교해 차이를 드러내는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피며, 그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미암이 『속몽구』에서 조선의 인물을 포함하여 다루는 등 역사상 인물 선택에 주체적 시각을 보였다고 평가된 것과 달리, 여성 인물의 일화에서는 한정적인 시각을 보인 점에 대해 깊이 있게 고구하며 미암의 여성 인식을 이해하는 데도 일정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2. 『續蒙求』와 『蒙求』 소재 여성 인물 일화와 그 유형

『속몽구』는 현재 23종의 판본이 전하고 있는데, 이는 크게 목판본 19종과 목활자본 4종으로 나뉘고, 목판본은 다시 題後를 쓴 지명에 따라 薪浦寓畵(명종21(1566)년 11월)와 漢都寓畵(선조 8(1575)년 3월)로 구분된다. 이러한 『속몽구』의 여러 판본 가운데 본고에서는 신평우사의 제후가 붙은 초기의 목판본으로, 온전한 권수를 갖추고 있고 원문 접근성이 뛰어난 점에서 淺草本(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대상으로 하였다.¹²⁾

이러한 『續蒙求』에 수록된 592명의 인물 일화 가운데, 본문에서 다루려는 여성 인물 일화의 제목만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2) 『속몽구』의 판본에 대해서는 배현숙, 위의 논문을 토대로 정리한 이연순, 위의 논문의 내용을 따랐다.

〈표 1〉 『속몽구』 권1~4 소재 여성 인물 일화의 제목과 ‘人物言論出處’

권수	제목	뜻	인물언론출처 (앞 인물 / 뒤 인물)
권1	『樂妻斷織陶翟借耘』	악양자의 처는 베를 끊었고, 도연명의 처는 함께 밭을 밟다.	後漢書 / 陶淵明集
	『崔媼對飯考叔舍羹』	최씨 어머니는 밥을 함께 먹었고, 영고 숙은 국을 버렸다.	自治通鑑, 通鑑綱目 / 左傳
권2	『楚媛勤苦姜龐孝養』	초원은 부지런히 힘썼고, 강시와 그 아내 방씨는 효성스럽게 봉양하였다.	通鑑綱目, 自治通鑑 / 後漢書, 東坡文集
	『趙姬謙退晉劉弘廣』	조희는 겸손히 물러났고, 진나라 유씨 부인은 마음이 넓고도 넓었네.	左傳 / 自治通鑑, 通鑑綱目
	『淑英斷髮呂榮流淚』	숙영은 머리를 잘랐고, 여영은 눈물을 흘렸다.	三綱行實 / 後漢書
	『岐陽易卑太原輕駟』	기양공주는 낮은 자세로 바뀌고, 태원은 거마를 가벼이 하였다.	없음 / 後漢書
	『桓葵卓卓紀姬漂漂』	환란의 과부 딸은 절개가 높았고, 기나라 숙희는 떠돌았다.	後漢書 / 春秋
	『明德后最大家女師』	명덕후는 가장 현명했고, 조대가는 여자 스승이었다.	大學衍義, 自治通鑑 / 後漢書, 朱子語類
권3	『太任教胎上谷養男』	태임은 태교를 하였고, 상곡(정자 어머니)은 아들을 길렀네	小學 并吳註 / 近思錄
	『河間宗英宣仁女堯』	하간왕은 종영이 되었고, 선인은 여자 요임금이라 할 만하였다	前漢書 / 宋元通鑑
	『韓氏熊膽孟母猪肉』	한씨의 웅담, 맹모의 돼지고기	小學 并吳註 / 小學 并吳註, 列女傳, 韓詩外傳
권4	『姜后匡宣文德賞徵』	강후는 널리 뵈고, 문덕은 위장을 칭찬하였다.	列女傳 / 大學衍義, 自治通鑑

총 12題 21人. 『속몽구』 권1에 수록된 ‘인물언론출처’에서 출처를 밝혀 제시하였는데, 제목의 앞에 있는 인물의 출처 먼저, 뒤의 인물의 출처는 ‘/’ 다음에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최온의 출처는 『자치통감』과 『통감강목』이고, 고숙의 출처는 『좌전』이다. 단, 위 제목에 들어 있는 두 인물 중 한 명이 남성인 경우 본고에서 다루려는 여성 인물 일화 대상에서는 제외

하였다. 곧 권1, 『崔媼對飯考叔舍羹』에서 뒤의 ‘考叔舍羹’, 권2, 『楚媛勤苦姜龐孝養』에서 뒤의 ‘姜龐孝養’, 권3, 『河間宗英宣仁女堯』에서 앞의 ‘河間宗英’은 남성 인물의 일화이다. 이들 인물의 출처에 대한 분석은 다음 장 2절에서 다루겠다.

이에 대해 비교 대상으로 다룬 『몽구』 소재 여성 인물 일화의 제목은 다음 표와 같다.¹³⁾

〈표 2〉 『몽구』 上·下卷 소재 여성 인물 일화의 제목과 出處

권수	제목	뜻	출처
上卷	『杜后生齒靈王出髭』	없던 이가 솟아난 두후, 콧수염이 난 영왕	晉書 / (左氏傳)
	『庶女振風鄒衍降霜』	풍속을 진작한 서인의 딸, 서리를 내리게 한 추연	淮南子 / (文選)
	『郭槐自屈南康猶憐』	스스로 굴복한 곽괴, 도리어 슬퍼한 남강공주	晉書 / 世說新語
	『陵母伏劍軻親斷機』	칼에 얹어져 죽은 왕릉의 어머니, 짜던 베를 잘라버린 맹자의 어머니	(漢書) / 古烈女傳
	『齊后破環謝女解圍』	연환을 깨어버린 제나라 왕후, 도련님의 포위를 풀어준 사도온	戰國策 / (晉書, 世說新語)
	『西施捧心孫壽折腰』	통증에 가슴을 두드린 서시, 손수의 절요보리는 기이한 행동	莊子 / (後漢書)
	『逸少傾寫平子絕倒』	대접을 아끼지 않은 왕우군의 아내, 위개의 담론에 절도한 평자	晉書, 世說新語 / (晉書, 世說新語)
	『淵客泣珠交甫解佩』	눈물이 구슬이 되는 연객, 교보에게 구슬을 풀어준 강비	舊注引博物志 / 列仙傳
	『買妻恥醜澤室犯齋』	끄러워한 주매신의 아내, 재계를 방해한 주택의 아내	(漢書) / 漢官儀

13)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몽구』의 주 자료는 여러 번역서 가운데 이민수의 신완역 『蒙求』 上下(명문당, 2002.)와 (文淵閣) 四庫全書에 들어 있는 『蒙求集注』 上下를 토대로 번역한 임동석의 『몽구』 1-5권(동서문화사, 2010.)을 택하였고, 번역도 이들을 참고하여 따랐다.

	『馬后大練孟光荊釵』	거친 명주포 옷을 입은 명덕마황후, 가 시나무를 비녀로 삼은 양홍의 처 맹광	(後漢書) / (後漢書)
	『馮媛當熊班女辭輦』	달려드는 곰을 막아선 풍소의, 황제의 수레를 거절한 반첩여	(漢書, 列女傳) / (漢書, 列女傳)
	『宿瘤採桑漆室憂葵』	뽕을 따고 있는 흑이 난 여인, 아욱 밭을 망쳐 근심에 찬 칠실의 여인	古烈女傳 / 古烈女傳
	『綠珠墜樓文君當壚』	누각에서 뛰어내린 녹주, 목로주점을 차린 사마상여의 아내 탁문군	晉書 / (史記列傳, 漢書)
下卷	『衛后髮鬢飛燕體輕』	위후의 아름다운 머리카락, 제비처럼 가벼운 몸매의 조비연	張衡 西京賦 / 西京雜記
	『南風擲孕商受斷涉』	임신부에게 창을 던진 가남풍, 물 건너자의 다리를 잘라본 상나라 주왕	(晉書) / 書 泰誓
	『韓壽竊香王濛市帽』	향을 훔쳐 한수와 사통한 가충의 딸, 모자를 사러 나선 왕몽	晉書 / 晉書
	『許史侯盛韋平相延』	허황후와 사랑제의 번성한 제후들, 재상 자리를 이어간 위현과 평당의 부자	(漢書) / (漢書)
	『無鹽如漆姑射若水』	살결이 검기가 칠흑 같은 무염녀 종리춘, 얼음같이 흰 피부의 막고야산 신선들	古烈女傳 / 莊子
	『苟弟轉酷嚴母掃墓』	갈수록 더욱 잔혹하게 변해가는 구희의 아우, 돌아가 아들이 문힐 묘지를 청소한 엄연년의 어머니	晉書 / (漢書)
	『宋女愈謹敬美猶績』	더욱 삼감을 다하는 송나라 पो녀중, 배를 짜며 자식을 훈계한 강경	古烈女傳 / 古烈女傳

총 20題 30人. 위와 마찬가지로 남성 인물의 일화에 해당하는 靈王出鬚, 鄒衍降霜, 郭槐自屈, 平子絕倒, 淵客泣珠, 商受斷涉, 王濛市帽, 韋平相延, 姑射若水, 苟弟轉酷는 본고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출처는 『몽구』의 본문에서 밝힌 경우는 그대로 노출하고, 밝히지 않았으나 근거로 한 출처는 찾아서 괄호 안에 넣어 제시하였다.¹⁴⁾

이상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속몽구』 소재 여성 인물은 몇 가지 유형

14) 『몽구』의 일화 본문에서 밝히지 않은 출처는 임동석, 『몽구』 1-5권, 동서문화사, 2010.에서 '참고문헌'으로 따로 제시한 것을 참고함.

으로 분류되므로, 여기서 그 유형을 분류하며 살피겠다. 우선 『속몽구』에 수록된 여성 인물은 크게 어머니와 부인으로 나뉜다. 어머니는 다시 아들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황제, 신하, 학자의 어머니 등으로 다시 분류된다. 이 순서대로 들면, 황제의 어머니로는 태교를 잘한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太任教胎]과 어린 아들인 송 철종을 섭정해 여중요순이라 불린 선인황후[宣仁女堯]가 있고, 신하의 어머니는 백성을 교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아들을 위해 몸소 실천을 보여준 후위 방경백의 어머니 최씨[崔媼對飯]가 있다. 그리고 학자의 어머니로는 송대 유학자 程子の 어머니인 상곡부인[上谷養男], 자식이 공부할 때 熊膽을 준비해 준 柳仲郢의 어머니 한씨와 대유인 맹자의 어머니[韓氏熊膽孟母猪肉] 등을 들 수 있다.

부인도 황후에서부터 가난한 선비의 부인까지 신분 폭이 넓고 주제 의식도 다양하다. 황실의 경우부터 들면, 당태종의 아들인 紀王 愼의 딸로 투기하는 종실 여성들을 꾸짖고 남편을 손님처럼 모시며 부지런히 힘쓴 초원[楚媛勤苦], 후한의 장수 馬援의 딸이자 明帝의 부인으로 자신이 낳지 않은 皇子를 키우며 투기하지 않고 검소하게 생활한 마황후 명덕[明德后最], 晉文公의 딸로 趙衰의 아내가 되어 남편이 먼저 얻은 부인을 內子로 올리고 자신은 그 아래로 낮춘 趙姬와 아이가 없었으나 적첩 사이에 투기하지 않은 진나라 왕 극용의 부인 유씨[趙姬謙退晉劉弘廣], 周나라 宣王을 위해 덕을 베푼 부인 강후와 魏徵의 諫言을 칭찬하며 唐太宗에게 듣게 하여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한 唐太宗의 아내 문덕황후 長孫氏[姜后匡宣文德賞徵], 기나라 제후가 죽었는데도 절의를 지켜 기나라에서 종묘의 제사를 받들며 재가하지 않고 과부로 산 숙희[紀姬漂漂], 당현종의 장녀로 杜氏 집안에 시집 가 자신을 낮추고 종을 잘 다스려 집안을 편안하게 한 기양 공주[岐陽易卑], 절개가 높았던 名士 桓鸞의 과부 딸[桓鸞卓卓], 반표의 딸이자 조수의 아내로 황후의 스승 노릇을 한 조대

가[明德后最大家女師] 등이 있다.

그리고 선비의 부인으로는 남편에게 청렴할 것과 끈기 있을 것을 일깨운 樂羊子の 妻, 은거한 남편과 뜻을 같이 한 도연명의 처 적씨[樂妻斷織陶翟偕耘], 귀양 간 남편을 기다리며 부부간에 절개를 지킨 아내 배씨와 도박하는 남편의 마음을 되돌린 오나라 허승의 아내 여씨[淑英斷髮呂榮流淚], 은둔하며 절개를 지킨 남편을 존중한 후한 太原王霸의 부인[太原輕駟] 등이 있다.

이렇듯 다양한 유형의 여성 인물들이 선택되었으나 대개 역사상 많이 알려진 중국의 상층 여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훌륭하고 모범적인 언행을 남긴 이들 여성 인물의 일화를 통해 이상적 여성상을 제시하려 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에 다음 장에서 『續蒙求』에 들어 있는 여성 인물 일화를 대상으로, 인물 선택과 주제 구현 면에서 『몽구』의 경우와 비교하여 드러나는 특징을 살펴보겠다.

3. 『續蒙求』 소재 여성 인물 일화의 특징

1) 역사상 중국 상층 여성의 모범적 언행을 담은 일화 선택

『속몽구』 소재 여성 인물 일화의 특징으로 『몽구』와 비교하여 주목되는 점은 먼저 여성 인물 선택 면이다. 곧 『속몽구』는 역사상 뛰어난 언행을 보인 중국의 상층 여성 인물들을 주로 취택하여 다룬 점에서, 서인 신분도 포함하고 상층이라도 악행을 저지른 인물까지 다룬 『몽구』와 비교해 특징적이다. 정자의 어머니 상곡군군에 관한 일화를 예로 들어보자.

상곡군군은 정자의 어머니 후부인이다. 시부모를 모시는 데 효도하고 부지런

하다고 칭찬받았으며, 남편과 서로 대하기를 손님처럼 하였다. 부인은 인자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며 너그럽고 돈후하였다. 여러 서자들을 어루만지고 사랑해 주기를 자기에게서 난 자식이나 다름없이 하였다. 집을 다스림에는 법도가 있어 엄하지 않으면서도 잘 정리되었다. 노비들을 때리는 것을 싫어하였으며 어린 노비는 아들딸처럼 여겼다. 여러 아들이 혹 노비를 욕하고 꾸짖으면 반드시 훈계하시기를 “귀천은 비록 다르지만 사람은 다 마찬가지로다. 너희들이 이렇게 컸을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선공이 노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너그럽게 풀어 드렸다. 다만 자기 아들이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것을 감싸주지 않았다. 항상 말씀하기를 “아들이 불초하게 되는 것은 어머니가 그 잘못을 덮어주어 아버지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부인에게는 아들 여섯 명이 있었으나, 오직 두 명만 살아남았다. 그 아들에 대한 자애는 지극하였다. 그러나 그들을 가르치는 방도에는 조금도 관용이 없었다. 아들이 겨우 서너 살 때, 걷다가 넘어지면 집 사람들이 뛰어가 안아 일으키며 아이가 놀라 울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부인은 언제나 꾸짖어 책망하기를 “네가 만약 침착하다면 어찌 넘어지겠느냐”라고 하였다. 밥 먹을 때에는 언제나 옆 자리에 앉게 하였다. 음식의 맛을 보며 국의 간을 맞추면 항상 꾸짖어 못하게 하시며 말씀하기를 “어려서부터 욕심대로 채우려 하면 커서는 어찌하겠느냐?”라고 하였다. 비록 심부름꾼이라 하더라도 나쁜 말로 그들을 꾸짖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형제는 평생토록 음식과 의복을 가리지 않았으며 나쁜 말로 사람들을 꾸짖을 줄 몰랐다. 이는 본성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그렇게 된 것이다. 남과 다투게 되면 비록 정당한 경우라도 편들어주지 않았다. 말씀하기를 “자기를 굽히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지, 자기주장을 펴지 못하는 것은 걱정될 것 없다.”라고 하였다. 아들들이 자라자 항상 훌륭한 스승과 벗을 좇아 놀도록 하였다. 비록 살림은 가난하였으나 간혹 아들이 손님을 초대하면 기쁘게 준비해 주었다.¹⁵⁾

15) 柳希春, 『續蒙求』 권3, 『太任教胎上谷養男』, 上谷郡君程子母, 侯夫人也. 事舅姑, 以孝勤稱, 與夫太中公, 相待如貧. 仁恕寬厚, 撫愛諸庶不異己出. 治家有法, 不嚴而整. 諸子或加呵責, 必戒之曰, “貴賤雖殊, 人則一也. 汝如是大時, 能爲此事否.”

위 일화는 『近思錄』에 실려 있다. 정씨 형제가 아버지 太中 程珣에 대해 언급한 글 속에서 어머니인 후부인에 관한 부분만을 따온 것이다. 형식적인 면에서 보면, 전체가 후부인의 언행에 관한 일화로만 되어 있고 끝에 타자의 논평이 따로 붙어 있지 않지만, 그 안에 정씨 형제의 시선이 들어 있어 또한 전체가 아들들의 논평으로 볼 수도 있다. 이는 『속몽구』가 대부분 취하고 있는 형태, 곧 인물의 언행을 담은 일화와 그 뒤에 제가-대개 주자나 그 학자들-의 논평이 붙는 형태를 따르지 않은 점에서 독특하다.¹⁶⁾

본문 내용을 보면, 정씨 형제 어머니인 상곡부인의 행실 가운데 “여러 서자들을 어루만지고 사랑해주기를 자기에게서 난 자식이나 다름없이 하였다.” 라는 대목이 눈에 띈다. 위 글의 출처에서 더 보면, “아버지의 사촌 형제와 어린 고모를 부인이 보살피되, 항상 자기 자식과 똑같이 하셨다.”¹⁷⁾ 라 한 내용이 나온다. 이것을 보충하여 이해하면, 여기서 서자는 첩의 자식이 아니라 자기가 낳지 않은 일가친척들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특히 교육방법에 의미 있는 부분이 보인다. 정씨 형제가 음식과 의복을 가리지 않은 것은 어려서 그 어머니가 욕심내지 않는 자세를

先公凡有所怒, 必爲之寬解. 唯諸兒有過, 則不掩也. 常曰, “子之所以不肖者, 由母蔽其過, 而父不知也.” 夫人男子六人, 所存惟二, 其愛慈可謂至矣. 然於教之道, 不少假也, 纔數歲, 行而或踣, 家人走前扶抱, 恐其驚啼. 夫人未嘗不呵責曰, “汝若安徐, 寧至踣乎.” 飲食常置之坐側, 常食絮羹, 卽叱止之曰, “幼求稱欲, 長當何如.” 雖使令輩, 不得以惡言罵之, 故願兄弟平生, 於飲食衣服, 無所擇, 不能惡言罵人, 非性然也. 教之使然也, 與人爭忿, 雖直不右曰, “患其不能屈, 不患其不能伸.” 及稍長, 常使從善師友游. 雖居貧, 或欲延客則喜而爲之具.

16) 『續蒙求』의 실제 본문 구성은 권1에 실린 『범례』에서 밝히고 있듯이, 分註의 방식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곧 한 인물에 관한 일화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한 諸家의 평을 덧붙여 註釋을 다는 본주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연순(2011), 앞의 논문, 439~461쪽 참조)

17) 『近思錄集解』卷6, 家道, 從叔幼姑, 夫人存視, 常均已子.

갖도록 깨우쳐서이고, 남들에게 나쁜 말로 꾸짖을 줄 모르게 된 것은 본성이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가르쳐서 된 것이라 하였다. 이는 타고난 본성보다, 교육을 통해 행동이 변화될 수 있는 점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해주고 있다. 또한 정씨의 어머니는 아들들이 남들과 싸워도 절대 편들어주지 않으며, 자기를 굽히지 못할까를 걱정하지, 자기주장을 펴지 못할까를 걱정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흔히 자기 아이가 다른 애와 다투고 오면, 혹시라도 자기애가 기를 펴지 못할까 걱정하는데, 이와는 다른 이유에서 걱정을 한 것이다. 다툼이 일어났을 때 자기 아이의 주장을 관철시켜 이기게 하는 것보다,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자기를 굽히는 연습을 해보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속몽구』에서는 학자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왕비, 사대부의 아내 등 상층 여성 인물들이 모범적 언행을 남긴 일화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는 『몽구』가 역사상 중국의 상층 여성 인물뿐 아니라 신분에 구애 없이 다양한 여성 인물들을 다뤘다는 점과 비교된다. 곧 『몽구』에서는 황후나 공주, 사대부의 부인 등 상층 여성은 물론, 서인 신분의 여성까지도 포함하여 다루고 있는 것이다. 서인 신분의 여성을 다룬 일화는 ‘풍속을 진작시킨 서인의 딸[庶女振風]’을 들 수 있다.

물론 『몽구』에도 상층 여성 인물 일화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진성제의 황후인 두후[杜后生齒], 남강공주[南康猶憐], 왕릉의 어머니와 맹자의 어머니[陵母伏劔軻親斷機], 제나라 왕후와 사도온[齊后破環謝女解圍], 왕우군의 아내[逸少傾寫], 강비[交甫解佩], 주매신의 아내와 주택의 아내 익서[買妻恥醮澤室犯齋], 명덕마황후와 양홍의 처 맹광[馬后大練孟光荊釵], 풍소의와 반첩여[馮媛當熊班女辭輦], 녹주와 사마상여의 아내 탁문군[綠珠墜樓文君當壚], 견황후[甄后出拜], 가남풍[南風擲孕], 가충의 딸[韓壽竊香], 허황후[許史侯盛], 무염녀 종리춘[無鹽如漆], 엄연년의 모

친[嚴母掃墓], 송나라 포녀종과 강경[宋女愈謹敬美猶績] 등이 그것이다.

그 외에 『몽구』에는 본래 신분에서 상층으로 바뀐 여성 인물의 일화도 수록되어 있다. 위후와 조비연[衛后髮鬢飛燕體輕]의 예가 그러하다.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행실만 기록한 일화로 흑이 난 여성과 칠실의 여성[宿瘤採桑漆室憂葵]과 같은 예도 있다. 이처럼 『몽구』의 여성 인물은 서인의 딸에서부터 사대부의 아내와 학자의 어머니, 공주와 후궁, 황후에 이르기까지 그 신분과 처지의 폭이 크고 넓은 것이다.

그런데 『몽구』에는 상층이면서 악행을 저지른 여성 인물의 일화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속몽구』와 비교된다. 『몽구』에서는 역사상 악행을 저질러 유명해진 여성의 대표적인 예로 ‘임신부에게 창을 던진 가남풍[南風擲孕]’을 들었다. 가남풍은 그 아버지가 賈充(217~282)이고, 남편이진 나라 해제로, 황후가 되었는데, 시기와 질투가 심하고 성질이 사나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애를 밴 첩에게 창을 던져 아이가 칼날에 맞아 땅에 떨어진 일화로 알려진 인물이다.¹⁸⁾ 이때 짝을 이룬 인물은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으로, 아침에 물 건너는 자의 다리를 자르고 어진 사람의 심장을 가른 일화를 들었다.¹⁹⁾

이상과 같이 여성 인물 선택 면에서 역사상 중국의 상층 여성의 모범적인 언행을 보인 일화만을 취택한 『속몽구』는 그보다 폭넓은 신분의 여성 인물들과 그들의 다양한 일화를 다룬 『몽구』와 비교하여 차이점이 있다.

18) 『蒙求』下, 「南風擲孕」, 晉惠帝賈皇后, 名南風. 父充位三公. 初武帝欲爲太子取衛瑾女. 曰, 衛公女有五可. 賈公女有五不可. 衛家種賢而多子, 美而長白. 賈嫁種妬而少子. 醜而短黑. 元后固請. 荀顛·荀勗並稱充女之美, 乃定婚. 南風妬忌多權詐. 太子畏惑之, 嬪御罕有進幸者. 性酷虐, 嘗手殺數人, 或以戟擲孕妾, 子隨刀墮地. (후략)

19) 『蒙求』下, 「商受斲涉」, 書泰誓曰, 商王受斲朝涉之脛, 剖賢人之心.

2) 성인 남성 독자를 의식한 이상적 여성상의 제시에 중점

다음으로 역사상 중국의 상층 여성 가운데 모범적 언행을 남긴 인물을 주로 선택한 『속몽구』에서는 이상적 여성상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 점이 발견된다. 태수인 아들을 둔 어머니가 몸소 백성을 교화한 일화를 예로 들어 살펴보고자.

후위의 명신 방경백이 동쪽의 청하 태수가 되었다. 방경백의 어머니 최씨는 경서에 통달하고 밝은 식견이 있었다. 패구의 부인이 그 아들의 불효를 열거하자, 방경백이 어머니께 아뢰었다. 어머니는 “산골 백성이 예의를 알지 못하니 어찌 심하게 꾸짖겠느냐.”라 하고, 이에 그 어미를 불러 그와 더불어 상을 마주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그 아들에게 당 아래에 지키고 서서 방경백이 어머니께 음식을 공양하는 것을 보게 하였다. (아들은) 열흘이 되지 않아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갈 것을 구하였다. 최씨가 말하기를 “이는 비록 면전에서 부끄러워하나 그 마음은 아직 아닌 것이다.”라 하고 또 함께하게 한 것이 무릇 이십여 일이었다. 그 아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피를 흘리자, 어미가 울며 돌려보내 주기를 빌었다. 그러한 뒤에야 이를 들어주었다. 그 아들은 마침내 효자로 소문이 나게 되었다.

호씨가 말하였다. “최씨는 일개 부인이지만, 교화의 근원은 말이나 명령에 매이지 않고 몸소 따르게 하는 데에 있으며, 교화의 효험은 얼굴을 바꾸는 것을 취하지 않고 마음이 고쳐지는 데에 있음을 알았다. 한 달 사이에 완쾌한 자를 변하게 하여 효자가 되게 했으니 누가 백성이 과연 완악하다고 이르리오. 임금이 되어 이것을 보면, 또한 자기를 성찰하고 덕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²⁰⁾

20) 柳希春, 『續蒙求』 권1, 「崔媼對飯叔叔舍羹」, 後魏名臣房景伯爲東清河太守. 景伯母崔氏, 通經有明識. 貝丘婦人列其子不孝, 景伯白其母, 母曰, 山民未知禮義, 何足深責. 乃召其母與之, 對榻共食, 使其子侍立堂下, 觀景伯供食. 未旬日悔過求還. 崔氏曰, 此雖面慙, 其心未也. 且虱之凡二十餘日, 其子叩頭流血. 母涕泣乞還, 然後聽之, 卒以孝聞. 胡氏曰, 崔氏一婦人, 知教化之原, 不係辭命, 而在於躬率. 教化之效, 不取革面, 而在於心改. 旬月之間, 變頑悖爲孝子, 孰謂民果頑哉. 爲人上而觀此, 亦可省己而修德矣.

위 일화는 후위의 명신이었던 ‘房景伯’이란 인물의 이름부터 들며 시작하나, 바로 그 어머니 최씨에 대한 소개로 이어진다. 최씨는 경서에 통하고 식견이 밝았는데, 청하 태수가 된 아들 방경백이 백성 가운데 불효한 아들을 고발한 부인의 얘기를 어머니께 전하자, 최씨가 그에 대해 꾸짖기보다 직접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교화하였다는 것이다. 곧 최씨는 불효한 자식에게 방경백이 어머니께 효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하였고, 얼굴빛이 바뀌는 것보다 마음이 바뀌는 것에서 비로소 교화되었음을 알아차렸다고 하였다. 이러한 교화의 방법을 통해 최씨가 불효한 백성에게 효도하는 마음을 갖게 한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호안국의 평을 인용해, 부인이라도 백성들을 교화한 행적이 남다르게 훌륭한 점을 칭송하며, 임금에게 자기를 성찰하고 덕을 닦는 데 모범으로 삼도록 권한 내용까지 담았다.

이에 비해 『몽구』는 순전히 동몽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내용과 의도를 담아내고자, 역사상 혹 악행을 저질러 알려진 인물이라도 교육적 포폄의 대상으로 다룰 수 있기에, 여성 인물의 경우에도 그 선택의 폭이 훨씬 넓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몽구』는 찬자인 이한이 살았던 後唐 시대까지 역사상 교육적으로 다룰 만한 인물, 곧 교육적인 측면에서 가치 판단이 가능한 인물들로 그 내용과 의도를 담아내기에 적합한 경우면 선택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처럼 『속몽구』가 『몽구』와 비교해 이상적 여성상의 제시에 중점을 두고 주제를 구현하려 한 점은 『속몽구』의 대상 독자 설정이 애초에 달랐던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몽구』는 제목에서부터 드러나듯이 주된 독자층을 ‘동몽’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속몽구』는 이와 달리 동몽뿐 아니라 군자, 곧 성인 남성으로까지 확장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곧 『속몽구』 권1의 앞부분에 실린 『續蒙求題』에서는 미암의 찬술 의도와 함께 대상 독자를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군자로까지 확대해 밝

히고 있다. 그리하여 『속몽구』는 어린 아이들이 읽을 기르는 학문을 하게 하는 것과 군자가 덕을 쌓는 방법으로 삼게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속몽구』를 찬술한 뜻이라고 하였다.²¹⁾ 이에 『속몽구』는 어린 아이나 성인군자가 역사상 모범적인 사례를 본받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여성 인물의 경우에도 선행을 보여준 일화를 주된 대상으로 선택하여 이러한 주제를 구현하였던 것이라 파악된다.

또한 『속몽구』의 체제상 특징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 책의 앞부분에 ‘인물인론출처’라는 항목을 제시해 인용한 모든 인물 일화의 출처를 밝힌 것이다. 여기서 여성 인물 일화의 출처도 찾아 앞의 표에서 밝혀놓은 바 있다. 그것은 『自治通鑑』, 『通鑑綱目』, 『後漢書』, 『春秋』, 『三綱行實』, 『小學 并吳註』, 『近思錄』, 『宋元通鑑』, 『列女傳』, 『韓詩外傳』, 『大學衍義』 등이다. 이 중 『後漢書』와 『列女傳』, 그리고 『小學 并吳註』, 『通鑑綱目』, 『自治通鑑』을 출처로 하는 경우의 빈도가 높았다.

이러한 출처를 통해 미암의 유배기 독서 경향과 학문적 관심사를 알 수 있는 한편으로, 여성 인물 일화의 출처도 지극히 제한적이었음을 알게 해 준다. 미암이 『續蒙求』를 찬술하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여성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인물 선택을 한 것이 아니고, 동몽과 군자를 대상으로 하여 자신이 존중한 주자학의 견해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의도 아래, 여성 인물의 일화도 그 일환에서 포함한 것이기에, 당대 성리학적 질서 체계에 부합하는 여성만이, 그 출처의 한계 속에서 취택된 것이라 파악된다.

이처럼 『속몽구』에서 독자를 성인으로까지 확대하여 설정한 것은 찬자인 미암 유희춘의 학문 성향과 여성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주제 구현에까

21) 柳希春, 『續蒙求』 권1, 『續蒙求題』, 昔楊大年訓家人, 以日記孝弟禮義之事, 爲童稚養知之學, 孔子贊易, 以多識前言往行, 爲君子畜德之方, 此余所以撰是書之意也. 참고로 『眉巖集』 권3에 실린 같은 제목의 글에는 ‘爲君子畜德之方’ 부분에 ‘君子’가 없다.

지 연결되었다고 보인다. 그리하여 미암은 16세기 주자학자로서, 주자학의 시각에서 역사상 위대하고 모범적인 행적을 보인 여성 인물을 선택하여, 그들이 현실에서 접하는 어머니, 부인, 딸 등과 같은 여성을 존중해야 할 대상, 본받아야 할 대상으로 설정해 귀감을 삼을 수 있도록 꾀하여, 궁극적으로 하나의 여성상을 제시하려 하였다고 파악된다.

실제로 미암이 그 부인 宋德峰을 ‘上谷夫人’에 견주어 평한 사례가 있다. 미암은 유배지에서 네 명의 庶女들을 낳았는데, 해배 후 그들의 속량을 위해 힘써주는 과정에서 덕봉이 이들을 성의껏 돌보아준 것을 일기에 기록하고, 그 끝에 덕봉을 “상곡부인과 다르지 않다.” 라고 높이 평하였다.²²⁾ 자식을 잘 기른 어머니의 대표적인 인물로 꼽히는 송대 유학자 程子の 어머니 후부인이 뒤에 상곡군군이 되었기에, 미암이 이를 줄여서 상곡부인이라 칭한 것이다. 그러나 상곡군군은 앞서 예를 들어 살펴보았듯이, 자기가 낳지 않은 일가친척들을 잘 돌본 행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암이 이를 적용할 때는 부인이 자신의 서자들을 잘 어루만져준 것을 들어 상곡부인에 비견하는 데서, 본래의 뜻과 다르게 이해한 점이 발견된다.

그런데 『속몽구』 소재 여성 인물들의 일화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달라지는 현상은 미암 당대보다도 후대로 가면서 더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앞에서 든 『속몽구』 권1의 방경백과 그 어머니 최씨의 일화를 다시 보겠다. 미암이 밝힌 이 일화의 출처는 『自治通鑑』과 『通鑑綱目』이다.²³⁾ 본래 방경백과 그 어머니에 관한 일화는 『北史』 권91의 『列女列傳』에 실려 있었다. 그것을 북송대 사마광이 『自治通鑑』에 뽑아 실었고, 그를 줄여 주자가 『通鑑綱目』에 강목체로 재구성하며 호안국의 평과 함께 실

22)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3책, 1569.9.17., 孽女海成, 昨來今夕去. 夫人遣婢護送, 撫愛諸庶, 無異於上谷夫人.

23) 『自治通鑑』 권151과 『通鑑綱目』 제31 상편 제9장에 실려 있다.

어 놓은 것이다. 미암이 이들을 출처로 인용하여 다룰 때까지만 해도 이 일화에서 방경백이라는 태수보다는 그 어머니 최씨의 인물됨과 행적이 중시되고, 호안국이 ‘부인’으로서 평한 부분도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조선 후기에 이 일화는 임금이나 목민관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데 중요한 예로 다루어지는데, 그때 이 일화에서 최씨의 인물됨, 곧 “경서에 통달하고 밝은 식견이 있었다.[通經有明識.]”는 내용은 아예 생략되거나, 호안국의 평을 인용할 때도 ‘부인’으로 언급한 부분은 빠지는 현상을 보인다. 곧 “최씨는 일개 부인이지만, 교화의 근원은 말이나 명령[辭令]에 매이지 않고 몸소 따르게 하는 데에 있으며, 교화의 효험은 얼굴을 비꾸는 것을 취하지 않고 마음이 고쳐지는 데에 있음을 알았다.” 라는 부분이다. 이는 구체적으로 영조 즉위년에 경연에서 『自治通鑑綱目』을 진강하던 중 金弘錫(1676~?)이 ‘以房景伯爲太守’ 구절을 짚어내 읽고, 이에 李明誼(1670~1728)가 호안국의 평을 인용하는데 그때 ‘부인’이라고 든 부분은 빼고, ‘말과 명령에 매이지 말 것’만을 추려, 임금으로서 백성을 교화하는 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사²⁴⁾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또한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이 일화를 들어 목민관으로서 백성에게 형벌을 쓰기보다 먼저 효를 가르칠 것을 강조한 대목²⁵⁾에서나, 김윤식이 청

24) 『송정원일기』 576책, 영조 즉위년 1724.10.22., 弘錫, 拈出第九丈, 以房景伯爲太守, 奏文義曰, 房母, 能感化不孝之子, 豈不奇哉? 其言曰, 此雖面慙, 其心未也。此與論語所云,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者, 相物合矣。躬率之效, 先儒多言之, 而此則尤可見其證驗, 貝丘婦人, 既至於列其子之罪, 而呈于官, 則其子之不孝無狀, 斯可見矣, 而二十餘日, 便能化頑爲孝, 躬率之效, 若是速矣, 然而若非實有諸己, 則無以感化。蓋房景伯, 平日事母, 能盡誠禮, 母慈子孝, 人可觀感, 故其母, 欲使貝丘婦人之母子, 見而化之, 此非一時強爲之事, 有諸內而形於外, 故能有躬率之效也。上曰, 其言好矣。明誼曰, 胡氏, 不繫詞令之言, 好矣。教化之道, 必有實踐, 然後人可孚感。

25) 丁若鏞, 『與猶堂全書』, 『牧民心書』, 卷七, 禮典 6조 제3조 教民, 房景伯爲清河太守, 有民母訟子不孝, 景伯母崔曰, 山民未知禮義, 何足深責。召其母與之對榻共

양군수로 가는 이춘소에게 전하는 글의 마지막에 이 일화를 짧게 인용해 백성을 감화시켜 선한 데로 옮겨가게 할 것을 당부하는 대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씨의 인물됨이나 부인으로서 평가받은 내용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⁶⁾

이렇듯 16세기에 편찬된 『속몽구』에서 여성 인물 일화를 다룰 때는 성인 남성 독자를 의식하여 하나의 이상적 여성상으로, 구체적으로 방경백의 어머니 최씨라는 인물에 집중하고 그를 통해 주제를 제시하는 데 충실했다면, 후대로 가면서는 같은 여성 인물에 대한 일화를 다룰 때에도 그 여성을 부각한 부분은 빠지고 남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주제를 드러내는 데로만 활용되면서 변질되는 과정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물론 그때 저술들은 교육서가 아니고 정치와 관련된 것이었으며, 미암이 출처로 밝힌 저술들에서, 곧 사마광이 『自治通鑑』에 이 일화를 뽑아 실었을 때나, 『通鑑綱目』에 직접적으로 임금에게 권하는 호안국의 평이 들어간 때, 이미 이 일화가 정치적인 목적성이 뚜렷해진 상황이었음은 충분히 짐작된다.

4. 『속몽구』 소재 여성 인물 일화의 의의와 한계

이상에서 조선시대 중반 주자학자인 미암 유희춘이 찬술한 『속몽구』 소재 여성 인물 일화의 특징을 『몽구』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이제 그 당대적 의의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고자 한다. 조선 중기에 동몽뿐 아니라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윤리서이자 학술서

食, 使其子侍立堂下, 觀景伯供食, 未旬日悔過求還. 崔曰, 此雖面慚, 其心未也. 且置之凡二旬餘, 其子叩頭出血, 母涕泣乞還, 然後聽之, 卒以孝聞.

26) 金允植, 『雲養集』卷9, 『送李春沼宰青陽序(丙子)』, 房景伯之守清河也. 侍其母食, 卒化貝邱人之母子. 吾知青陽之民, 亦必有觀感而遷善者矣.

에서 다루어진 여성 인물 일화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당대 또는 후대 여
훈서들과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그리고 후대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
저서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먼저 『속몽구』의 성격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속
몽구』는 기본적으로 당시 동몽을 위한 교육서 가운데 윤리서로 분류되
어²⁷⁾, 현대의 연구 초기에도 아동교육서로 다루어졌다.²⁸⁾ 이러한 점에서
미암의 『속몽구』에 들어 있는 여성 인물은 본고에서도 다른 『몽구』와 비
교될 뿐만 아니라, 『소학』 속의 여성 인물과도 비교 대상이 된다. 당시 동
몽을 위한 윤리 교육서로서 가장 많이 읽힌 『소학』에서는 교훈적인 언급
을 그대로 노출할 뿐만 아니라, 인물 언행을 통해서도 뜻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물 언행 가운데 여성 인물에 관한 경우도 있어, 대표
적으로 당나라 때 봉천현에 살던 두씨의 두 딸이 절개를 지킨 일화 등을
들 수 있다.²⁹⁾ 이처럼 『속몽구』를 『소학』과 같은 당대 동몽서들과도 비교
할 때, 특히 여성 인물의 선택과 주제 구현 면에서 의의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한편 『속몽구』는 인물 중심의 類書로 다루어지기도 하였다.³⁰⁾ 연세대
소장 유서를 11개 부류로 나누는 과정에서 『속몽구』가 ‘인물 중심의 유서’

27) 김훈식, 『朝鮮前期 蒙求書의 편찬』, 『仁濟論叢』, 17(1), 인제대학교, 2002, 13쪽.

28) 최혜진, 『조선중기 사족의 아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2008.

29) 이는 『소학집주』 권6 善行에 들어 있는데, 본래 『舊唐書』 卷193, 『列女列傳』의 ‘奉
天縣竇氏二女’에 있던 것을 가져온 것이다.

30) 심경호, 『연세대 소장 유서 및 한자어휘집의 가치』, 『동방학지』, 146, 연세대학교 국학
연구원, 2010, 11쪽, 34~35쪽, “『續蒙求分註』는 조선 전기 미암 유희춘이 인물의 일
화를 집성한 유서로서, 이한의 몽구, 범경인의 몽구를 보완한다는 뜻에서 명나라 때
까지의 인물고사를 선별해서 4권으로 엮고 分註를 가했다.”라고 하였다.

로 분류되었는데, 이렇게 『속몽구』를 아동을 위한 학습용 또는 교육용 도서만이 아닌 인물에 관한 유서, 곧 인물과 관련한 고사를 찾아 볼 수 있는 공구서로서 분류한 것은 또 다른 면에서 가치 평가라 할 수 있다.³¹⁾ 이처럼 『속몽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교육서이자 성인 학자가 학문을 하는데 필요한 학술서로서도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본고에서 『속몽구』 소재 여성 인물 일화를 다루면서 『속몽구』의 성격에 대해 여훈서의 요소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이에 새로운 의의가 부여되리라 여겨진다. 미암은 『속몽구』 외에 『新增類合』도 저술해 교육에 대해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기존에 있던 교육서를 새롭게 편찬하며, 이를 실제 손자에게 교육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³²⁾ 그러나 미암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서를 따로 저술하지는 않았는데, 『속몽구』에서 여성 인물 일화를 다뤄 여성 교육에도 관심을 드러냈다³³⁾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속몽구』를 본격적인 여훈서라 할 수 없지만, 여훈서의 성격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저술이라고 여겨진다.

미암이 살았던 시기 이전, 곧 조선 전기부터 국가에서 편찬한 윤리서로 세종 때 왕명으로 집현전에서 편찬한 『三綱行實』나 중종 때 曹伸(1454~1529)이 편저한 『二倫行實』 등이 있었고, 그 외에 따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昭惠王后의 『內訓』이나 崔世珍의 『女訓諺解』 등 여훈서도 나왔는데, 이들 윤리서에서 여성에게 교훈적인 내용을 담거나 훈계하는 내용

31) 이연순, 「『續蒙求分註』의 分註 방식 試考」, 『동양고전연구』 48, 동양고전학회, 2012, 147~167쪽.

32)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10책, 1571.1.11., 夫人昨夕語余曰 光延性聰敏有詞氣 可讀聚句及養蒙大訓, 小學等書 而今之讀新增類合 艱深之字 譬若頓兵堅城之下 蓋姑緩之 而令讀成文之書乎 余聞言而悟

33) 이연순, 「眉巖 柳希春의 『新增類合』의 字學書로서 의의와 가치 - 『類合』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39~64쪽.

속에 여성 인물의 일화를 활용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책은 미암이 집안 여성을 교육하는 데에도 쓰였다. 미암이 해배 후 조정에서 활동하던 선조 초기 당시 교서관에서 重刊한 『內訓』을 받아 딸에게 주자, 딸이 기뻐하며 그 딸 恩遇, 곧 미암의 외손녀에게 전해주었다³⁴⁾고 하는 일화에서 그 사실이 보인다.

그런데 당시 사대부가에서는 여훈서를 직접 편찬하기도 하였고, 이때는 주로 가훈서 형태를 취하여 대개 사대부 남성을 독자로 설정하고 있었다. 그러다 미암 다음 세대인 17세기 이후 가정 교화가 중시되며 사대부가 가훈서에서 여훈서로 과생되는 과도기적 단계가 李衡祥의 『閨範選英』과 같은 책에서 보이고, 宋時烈의 『尤庵先生戒女書』도 그러한 맥락에서 등장하여 18세기에 들어서면 여성, 노비, 서자 등을 포함하는 사대부가 여훈서가 본격적으로 등장한다.³⁵⁾ 이에 16세기에 편찬된 『속몽구』는 비록 여성 인물 일화를 포함하고는 있으나, 동몽뿐 아니라 군자, 곧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고, 18세기보다 이른 시기에 편찬된 여훈서라고까지 의의를 부여할 수는 없다. 다만 이들 가훈서가 司馬光의 『家範』에 영향을 받은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속몽구』의 「人物言論出處」에 司馬光의 『家範』이 들어 있지 않으나, 미암이 『속몽구』를 저술할 때도 이 司馬光의 『家範』을 모범으로 삼았으리란 점은 충분히 짐작된다. 주자가 『소학』을 편찬할 때도 司馬光의 『家範』에서 많은 부분을 발췌했고, 인물 일화를 주로 다룬 점에서 『속몽구』는 『소학』보다도 『家範』에 더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서 방경백의 어머니 최씨의 일화와

34)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7책, 1573.3.7., 唱淮金世傑持紙價內訓四冊來, 粧潢可愛, 卽予女子, 女子大喜, 卽稱謹當寶玩, 傳之恩遇云.

35) 김언순, 「18세기 종법사회 형성과 사대부의 가정 교화: 가훈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3, 한국사회사학회, 2009, 117~156쪽.

관련해 언급하였듯이, 18세기 이후 교육서 또는 여훈서가 아닌 남성 독자를 대상으로 한 대개의 저술에서는 같은 여성 인물을 다루면서도 『속몽구』와는 다르게 변형되어 전하는 현상과 비교하면, 『속몽구』가 남성 독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성 인물을 다룰 때는 그 본래의 의도에 충실하려는 자세를 보인 점에서 당대적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본고에서는 16세기의 대표적인 주자학자인 미암 유희춘이 찬술한 『속몽구』를 중심 대상으로, 『몽구』 소재 여성 인물의 일화와 차이를 보이는 점 가운데 인물 선택과 주제 구현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피고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기존에 조선시대 아동을 위한 한문 학습 교재이자, 인물 중심의 類書 형태인 미암 유희춘의 『속몽구』는 동몽뿐 아니라 군자를 대상으로 하여 학술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주체적인 시각이 제시된 점에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여성 인물 일화의 경우 『속몽구』가 이어 지은 『몽구』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역사상 중국의 상층 여성의 모범적인 언행만이 다루어진 점에서 차이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그 차이의 원인에 대해 고구해본 결과, 대상 독자층에 따른 찬자의 찬술 의도가 다르다는 점에서 주제 구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속몽구』에서 보이는 차이로 크게 인물 선택 면과 주제 구현 면에서 『몽구』와 비교해 『속몽구』 소재 여성 인물 일화의 특징을 밝히고 찬자의 찬술 의도와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조선시대 중기 여성 인물 일화에 대해 다른 저술로서 『속몽구』의 당대적 의의를 부여하고 한계를 밝혔다.

본고는 이와 더불어 미암의 유배기 저술인 『속몽구』 속에 들어 있는 여성 일화만을 따로 떼어서 집중적으로 다루며 그 특징을 살피고 당대적 의의와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미암의 여성 교육과 인식의 측면에 대해서도 연관하여 볼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동몽 또는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한정된 독자층을 가진 『속몽구』와 같은 교육서를 여성의 관점에서 다시금 바라보고, 최근 여성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며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현대적 의미를 생각해 보는 데도 일정 부분 기여하는 바가 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는 조선 중기 사대부 문인 학자로서 미암 유희춘의 여성 인식과 여성 교육관을 살펴보는 것과 연결되어, 곧 미암이 현실에서 어머니와 부인, 딸, 손녀, 첩과 서녀 등 여성에 대해 보여준 시각과 함께, 『속몽구』 저술을 통한 미암의 여성 인식 형성의 근거를 살피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었다. 다만 본고에서 이러한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한계가 있어 추후의 연구로 미룬다.

참고문헌

- 柳希春, 『眉巖日記草』 제1-5책, 조선총독부 한국사편수회, 1936, 제1책 1~396, 제2책 1~464쪽, 제3책 1~498쪽, 제4책 1~510쪽, 제5책 1~350쪽.
- 柳希春, 『眉巖集』, 한국문집총간 34권, 민족문화추진회, 1989, 1~781쪽.
- 柳希春, 『續蒙求』 1-4권, 淺草本,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刊寫年未詳, 1권 1~126쪽, 2권 1~117쪽, 3권 1~128쪽, 4권 1~137쪽.
- 安鼎福, 『順菴集』, 한국문집총간 229-230권, 민족문화추진회, 1998, 1~2227쪽.
- 李滉, 『退溪集』, 한국문집총간 29-31권, 민족문화추진회, 1989, 49~2875쪽.
- 李瀚, 『蒙求』 1-5권, 임동석 역, 동서문화사, 2010, 1권 1~400쪽, 2권 1~400쪽, 3권 1~416쪽, 4권 1~400쪽, 5권 1~416쪽.
- 李瀚, 『蒙求』 上下, 이민수 역, 명문당, 2002, 상하 1~850쪽.
- 임종욱, 『중국역대인명사전』, 이회문화사, 2010, 1~2279쪽.
-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일기문학』, 혜안, 2012, 1~272쪽.
-
- 김언순, 「18세기 중법사회 형성과 사대부의 가정 교화 : 가훈서를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3, 한국사회사학회, 2009, 117~156쪽.
- 김훈식, 「朝鮮前期 蒙求書의 편찬」, 『仁濟論叢』 17(1), 2002, 13~26쪽.
- 심경호, 「연세대 소장 유서 및 한자어휘집의 가치」, 『동방학지』 14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10, 11~35쪽.
- 심경호, 「續蒙求分註의 압운 체제: 續撰과 創新」, 『한국한문학회』 47, 한국한문학회, 2011, 415~464쪽.
- 이경하, 「『內訓』과 『小學·列女·女教·明鑑』의 관계 재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17,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8, 237~271쪽.
- 이연순, 「미암 유희춘의 『속몽구』 연구」, 『어문연구』 38(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1, 439~462쪽.
- 이연순, 「『續蒙求分註』의 分註 방식 試考」, 『동양고전연구』 48, 동양고전학회, 2012, 147~167쪽.
- 이연순, 「眉巖 柳希春의 『新增類合』의 字學書로서 의의와 가치 - 『類合』과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4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8, 39~64쪽.
- 배현숙, 「속몽구분주 판본고」, 『서지학연구』 26, 서지학회, 2003, 135~174쪽.

- 배현숙, 「柳希春이 板刻을 主導한 書籍에 관한 研究」,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3),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03, 277-295쪽.
- 정재훈, 「미암 유희춘의 생애와 학문」, 『남명학연구』 3, 경상대 남명학연구소, 1993, 69~77쪽.
- 정호훈, 「續蒙求分註」, 『고서해제』 X,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평민사, 2008, 26~33쪽.
- 정호훈, 「미암 유희춘의 학문활동과 『治縣須知』」, 『한국사상사학』 29, 한국사상사학회, 2007, 39~71쪽.
- 지준호, 「주자학의 사상적 분화와 전개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철학논집』 23, 한국철학사연구회, 2008, 317~347쪽.
- 최혜진, 「조선중기 사족의 아동에 대한 인식과 교육 : 유희춘의 『미암일기』를 중심으로」, 서울여대 석사학위논문, 2008, 1~53쪽.

ABSTRACT

A Study on the features of Female Characters' anecdotes in *Sok-Monggu*

Lee, Yeon-soon

I examined the features of the female character anecdote in a book written by Miam(眉巖) Yu Hui-chun(柳希春) during his exile, and revealed it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Compared with 『Sok-Monggu(續蒙求)』 and 『Monggu(蒙求)』, some differences are found in the way it chooses woman characters and embodies the theme.

As a result, in the choice of female character anecdotes, only exemplary words and deeds of the upper-class women in China history are found in 『Sok-Monggu(續蒙求)』. And in 『Sok-Monggu(續蒙求)』, its theme was intended to present an ideal female image that conformed to the Confucian worldview. This is the difference from the point that 『Monggu(蒙求)』 chooses anecdotes of women of various status, not just women of the upper class in China, and also at a point that 『Monggu(蒙求)』 describes a woman who has committed an evil deed in the anecdote.

Key Words 『Sok-Monggu(續蒙求)』, 『Monggu(蒙求)』, the female character anecdote, features, the choice of female character, the embodiment of the theme

논문투고일 : 2019.07.08
심사완료일 : 2019.08.07
게재확정일 : 2019.08.16